

교회소식

- 대심방 중입니다. 부활절 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장로장립 감사예배 및 임직식:
 - 임직자: 김동수, 서영수
 - 일시: 2019년 3월31일(주) 저녁 6시 뉴욕세광교회 본당
- 새가정 등록:

정의섭/임은도(Philip, Joshua, Ahha), 김정희(Tyra) 성도 가정이 새가정교육을 마치고 등록했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교육부 광고
 - Talent Market: 4월28일 12시30분 유년부실 진행을 도와주실 Volunteer(3명)가 필요합니다.
 - Sight & Sound 관람: Miracle of Christmas, 11월 2일, 신청마감: 9월 15일

섬기는 사람들

3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나경수 집사 (시 32)
이번 주 친교: 임미숙 집사, 하영미 집사
다음 주 친교: 구자금 목사, 신미라 권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솔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성경공부	여성반	수 10am / 소회의실
(3월개강)	가족반	목 8pm / 대회의실
	남성반	토 7:30am / 소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교역자

담임목사: 이민영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교육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All who are thirsty” -----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Prayer ----- Leader
 Word of God ----- **Colossians 4:5-6** ----- Pastor Kim
 Sermon ----- **“Season With Salt”** ----- Pastor Kim
 Intercessory Prayer ----- Together
 Closing Praise -----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 Together
 *Benediction -----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Opening Hymn Blessed the Lord, O my soul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570장(통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 다함께
 Hymn Christ our Lord is my Shepherd
 대표기도 ----- 시편 63 ----- 변명균 집사
 Prayer Psalm 63
 찬양 -----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시편 23** ----- 인도자
 Word of God Psalm 23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설교 ----- **“정녕 나를 따르리니”** ----- 이민영 목사
 Sermon
 *찬송 ----- 456장(통509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 다함께
 Hymn Have you Failed in Your Plan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주일 말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시편 16

여러분이 가지고 이룬 것 중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인맥 중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존귀한 성도들에게 “모든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2절). 왕이 누리는 위엄과 부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고, 수많은 왕과 고관들이 그를 존경하지만 주의 성도들이 가장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교제 가운데 주님이 이 정도로 귀해지고, 성도들이 이 정도로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복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격을 수양케 해주는 과외 선생이고, 든든한 인맥을 가능케 하는 스펙 중의 하나에 불과해 집니다. 주님이 아니라 우상이 됩니다. 헛된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귀한 분이 아니라, 진짜 좋고 귀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복을 삼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적든, 주신 자기가 어디든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고백합니다(6절). 감사함으로 든든합니다. 베푸므로 부요합니다. 그런 사람의 일상은 주님의 가르침을 매일 받으며 양심으로 그의 가르침을 따릅니다(7절). 그런 사람은 마음과 영과 육체가 기쁘고 즐겁고 안전합니다(9절). 주님이 자기 영광이 됩니다. 머리를 높이 들게 하는 자랑스러움이 바로 주님이 됩니다(시 3:3). 그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다(시 4:2).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을 누리십니다(시 4:7).

이 사람은 주께서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압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이미 죽었고 무덤에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착각한 것입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합니다(행 2:25-31; 13:35-37). 아버지만을 영광으로 여기시고 아버지의 완전한 영광이셨던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육신은 죽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얻은 생명, 우리의 몸과 영과 마음을 온전케 하신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길은 여기에서 거기까지 통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는 길은 헛된 꿈입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길은 속임수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여기서 지금 누리는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헛된 쾌락이 아닙니다. 잠시만 참고 견디면 천국에 가서야 받게되는 먼 훗날의 보상도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주님을 복으로 누리고, 성도들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거기서도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십니다. 생명의 길을 지금부터, 바로 다음 발걸음부터 영원까지 걸어갑니다. 오늘 이 길을 걷는 사람이 거기까지 갑니다. 오늘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 날도 즐겁습니다. 오늘 형제를 사랑할 때 천국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주의 앞... 주의 오른쪽”이 이 길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진짜 복되고, 성도들의 가장 즐거움 될 것입니다.

Memo